“Me too” 외치고 나선 캐나다 불교계

“피해자 편에서 가해자 조사할 것”

박영빈 객원기자



캐나다 불교계가 미투 운동에 나섰다. 사진출처=CBC



샴발라 홀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는 불교도들의 모습. 사진출처=샴발라 런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MeToo, 나도 당했다)의 열기에 캐나다 불교계도 자정활동에 나섰다.

캐나다의 ‘CBC 뉴스’는 5월 24일 북미 최대 불교단체중 하나인 ‘샴발라 불교(Shambhala Buddhism)’가 단체 내에서 일어난 성적 비행 혐의에 대한 처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샴발라 불교 캐나다 위원회의 의장 죠슈아 실버스타인은 지난 6년간 최소 12건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실버스타인 위원장은 “핼리팩스(Halifax)에 소재한 캐나다 본원에서 조사한 결과, 그간에 성적인 비행들이 있었다고 밝혀졌다”고 전했다. 단 이중 한 건은 아직 혐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캐나다의 샴발라 불교 회원은 약 14,000명이며 이중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들은 약 3,200명이다. 가해자들은 모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지도자로 활동하는 회원의 다수는 교사로 밝혀졌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북미 최대 불교단체 나서
불교계 성추행 자정 목적
지난 6년간 12건 성추행
전문가 구성 대책반 꾸려
성적 접촉 대해 강령 발표

실버스타인 위원장은 “샴발라 불교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성추행 혐의자들로부터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가해자들이 사건에 대한 폭로나 불만을 나타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로 사건을 은폐하려한 사실이 포착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난 2월, 위원회는 지역사회 전체에 샴발라 불교 명의의 서한을 통해 “성추행 및 부적절한 관계의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드시 나아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3월에는 전문가들과 피해자들로 구성된 성추행 · 성희롱 대책반을 구성했다.

실버스타인 위원장은 “일련의 계획을 세워 조사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수십 년 전의 혐의와 사건일지라도 제 3자 기관에 의해 조사될 것”이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의지를 다졌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조직 내 성적 접촉에 대한 새로운 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의 변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그간에 침묵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샴발라 불교는 1972년 티베트 출신의 불교지도자 최 촁파(Chögyam Trungpa)가 설립한 불교단체로, 미국과 캐나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클릭! 템플스테이 예약 완료!

日 데라하쿠, 6월 15일부터 온라인서비스 제공

이제 일본서 템플스테이를 예약하는 일이 일반 숙소를 예약하는 것만큼 쉬워진다.

‘인콰이러통신’은 5월 27일 일본 템플스테이 예약이 쉽고 간편해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회사 데라하쿠(Terahaku)는 6월 15일부터 일본 사찰 온라인에서 검색 ·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라 뉴스24’는 이가 일본서 5월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숙박사업법(住宅宿泊事業法, 이하 민박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박법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문제 해결과 무허가 민박을 줄이기 위해 민박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 법으로 사찰들이 마치 일반 숙소처럼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통적 사찰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점까지 더해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과거 템플스테이의 복잡한 신청 절차가 이번 계기로 간소화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데라하쿠 공식 웹사이트에서 소개되는 사진들.

100여 사찰 등록 돼 ‘눈길’
관광객 숙박문제 해결 위한
일본 ‘민박법’ 시행 여파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해서
간편하게 예약 할 수 있어

특히 데라하쿠는 관광객들이 일본 전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사경이나 명상등의 활동도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데라하쿠 웹사이트는 현재 일본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외국인 고객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적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와 제휴할 예정이다.

‘인콰이러통신’은 이런 현상이 사찰의 부흥과 더불어 사찰 근처의 농촌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라하쿠는 100여 개의 사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코 근처에 있는 온죠지 사찰도 포함돼 있다. 미이데라 사찰로 더 잘 알려진 온죠지는 일본서 4번째로 큰 사찰이기도 해 눈길을 모은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300년 만에 재건된 법당, 새롭게 장엄하다

日 나라 코후쿠지 중금당(中金堂)

소실과 재건을 8번 반복한 일본의 법당이 300년 만에 다시 섰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5월 26일 나라에 소재한 코후쿠지의 중금당 점안법회 모습을 보도했다.

코후쿠지는 669년 창건된 법상종의 대본산으로 전성기에는 2만 1천석의 쌀을 거둘 정도였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병화와 거듭되는 화재로 많은 전각을 소실과 재건을 반복했다. 절의 중심이었던 중금당은 1717년의 대화재로 전소, 300년간 재건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코후쿠지는 창건 1,300주년을 맞아 중금당 재건을 발원, 오는 10월 완공과 낙성법회를 기다리고 있다. 낙성법회에 앞서 300년 넘게 임시 금당에 모셔오던 석가모니 불상과 협시보살, 사천왕상등을 이운하여 모셨다. 또 역사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법상주(法相柱)를 함께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상주는 “법상종의 고승들을 중금당의 기둥에 그려 장엄한 것이다”라는 기록만 남아있다. 코후쿠지는 절의 보물인 법상만다라를 참고해 도안을 작성, 인도 · 중국 · 일본의 고승 14명을 선별했다.



점안의식중인 스님.



중금당 모형과 법상주에 그려진 조사들. 사진출처=닛케이 신문

중금당 내부 14개의 기둥 중에 단 한 기둥만을 옻칠을 하여 굳히고, 그 위에 여러 겹 일본종이를 배접했다. 그림을 그린 일본화가 하타나카 쥰코(71)씨는 “전통 안료만을 사용해 세필로 수없이 덧칠해서 질감을 살렸다, 앞으로 천년은 보존될 그림을 생각하고 그려냈다”고 전했다. 특히 배경을 선명한 군청색으로 칠해 붉은 칠이 된 중금당 내부에서 한눈에 주목을 받는 게 특징이다.

이날 점안식은 코후쿠지 관수(貫首) 타가와 ᄀᆞ이(71) 스님을 법주로 관계자 25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스님은 “잘 회향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붉은 기둥들 가운데 단 하나의 푸른 법상주를 많은 분들이 친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금당은 오늘 10월에 공사가 최종 완료되고, 20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윗 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기미, 손발톱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